

퇴봉정신으로 빛어낸 변경 경찰과 촌민의 동행

장백진변경파출소, 새시대 퇴봉정신 '평안 답안지' 제출



군중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장백진변경파출소 경찰들

“제한된 생명을 인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에 바치라.” 압록강을 끼고 있는 장백진 관할구역에서 퇴봉의 이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장백진변경파출소 경찰들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되었다. 그들은 퇴봉정신을 기증 치리에 깊이 융합시켜 ‘24 시간 평안 수호’와 ‘인민대중과의 령거리 소통’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분쟁 해소에 ‘가속도’— ‘단독 대응’에서 ‘다원적 공동 관리’로

기증사회의 갈등은 ‘열린 실타래’와 같다. 장백진변경파출소는 이에 대비해 ‘2+2X 분쟁 련동조정기제’라는 혁신적인 기제를 실천에 도입했다. 경찰, 사회구역 위원, 사법조정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싱크탱크’(智囊团)는 ‘법, 리, 정(法理情)’으로 난해한 ‘법률조례’를 ‘군중들의 언어’로 풀어내 분쟁 해결에 속도와 온기를 더했다.

지난해 겨울, 동안화원아파트단지의 두 이웃인 장씨 할아버지와 리씨 할아버지는 복도에 물건을 방치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날, 장씨 할아버지는 리씨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물건들이 공공구역의 통행길을 막아 안전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고 리씨 할아버지는 복도는 모두의 것이니 스스로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중에 갈등은 점점 악화되어 파출소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경찰 조수(赵树)는 이 분쟁을 접수한 후 즉시 ‘2+2X 분쟁 련동조정기제’를 가동, 사회구역, 사법소 조정원, 그리고 사정을 잘 아는 오래된 이웃들을 소집하여 함께 조정에서 나서

게 했다. 조정 현장에서 조수는 두 로인을 진정시킨 후 리해하기 쉬운 말로 그들에게 소방법규와 이웃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사회구역 조정원은 사회구역 환경과 조화로운 이웃관계를 설명하고 사법소 조정원은 법적 책임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었다. ‘싱크탱크’의 조정하에 두 로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화해의 손’을 잡았다.

이 기제가 운영되면서 이웃간의 분쟁과 가정 갈등 등과 같은 민간 문제 총 300 건 이상이 해결됐고 파출소는 그들로부터 100 여편의 감사편지와 감사기를 받게 되었다.

민생봉사에 ‘온정’ 담아— ‘일방적 지원’에서 ‘쌍방 질주’로

장백진변경파출소는 시중 ‘로인과 아이들’이라는 특별한 집단에 주목해오며 ‘관심 1+1’, ‘경찰아빠’ 등 일련의 애심활동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

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경찰과 시민간의 따뜻한 감정도 쌓았다.

성보(가명)는 부모님이 오래동안 외지에서 일하다 보니 홀로 남겨진 류재아동으로 성격이 내성적이고 학업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방문 도중 이 상황을 접하게 된 경찰 엄준백(闫俊伯)은 자발적으로 ‘경찰아빠’ 대렬에 합류했다. 그는 매주마다 시간을 내어 성보의 집을 방문해 그의 학업과 가정 갈등 등과 같은 민간 문제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다양한 과외활동에도 참여시켰다. 성보의 얼굴에는 차츰 웃음기가 많아졌고 성격도 밝아졌으며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경찰과 애심단체의 도움으로 성보는 자신의 학업의 꿈을 이루었음 뿐만 아니라 ‘경찰이 되겠다’는 꿈도 품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다.

생활이 어려운 로인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파출소는 ‘사랑의 슈퍼마



아이들에게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있는 장백진변경파출소 경찰

켓’을 설립하여 포인트로 생활필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었다.

독거 로인인 조씨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안 경찰 왕효양(王晓阳)은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도왔고 자주 대화를 나누며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었다. 파출소의 도움하에 조씨 할머니와 같은 11 명의 특수집단이 성공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150 여차례에 걸쳐 호적과 신분증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었으며 12 가구의 어려운 가정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소개하여 진정으로 ‘지원과 자립 병행’의 모식을 정착시켰다.

봉사 정신의 ‘전승’— ‘일회성 행사’에서 ‘상시적 실천’으로

‘퇴봉일터’와 ‘자원봉사대’에 의탁하여 장백진변경파출소는 관할구역의 3 개 사회구역, 2 개 촌민위원회에 일상화 협력 기제를 구축했다.

개학마다 경찰들은 교실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다. 경찰 왕효양은 자신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퇴봉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퇴봉정신에 대한 아이들의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퇴봉일기 되새기게’ 활동에서 아이들은 함께 들려앉아 퇴봉일기를 열심히 읽고 자신의 감상을 나누며 어린 마음에 선량함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갔다.

경찰들의 매번의 양로원 방문은 로인들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전하는 날이었다. 경찰 마봉상(马鹏翔)은 매번 로인들에게 마사지 봉사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경찰들은 로인들에게 ‘자기 방지’ 지식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잘 보호하도록 상기시켰다.

파출소 명예의 벽 앞에서 진행된 ‘퇴봉 따라배우기, 초심 말하기’ 활동에서 군중들은 경찰들의 헌신적인 정신에 감명받았으며 퇴봉을 본보기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파출소는 퇴봉 따라배우기 자원봉사 활동을 130 여차례 진행하여 1,000 여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30 여명의 자원봉사 핵심 인력도 양성했다.

장백진변경파출소 정치교도원 로자양(卢子洋)은 “군중의 미소가 바로 새시대 퇴봉정신의 가장 훌륭한 답안이다.”라며 “희망으로 가득찬 이 땅에서 경찰과 시민이 손을 맞잡고 사랑과 책임으로 함께 그런 평화로운 그림은 봄의 발걸음을 따라 새시대의 감동적인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감명 깊게 전했다.

/ 김명준
정현관 기자



김림신문사 특약기자이며 연길시 북산가두 ‘로인퇴봉반’ 반장인 박철원(81세)이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개인’ 영예를 수여받았다는 희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59년의 당년환을 가진 박철원은 2000년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에서 퇴직한 후 2009년에 연길시 북산가두 ‘로인퇴봉반’에 합류해 반장으로 활동하며 로인 봉사와 사회 공헌의 모범을 보여왔다.

‘맹인 반장’의 ‘두 눈’이 되어

2009년 박철원은 부인과 함께 북산가두 ‘맹인 반장’ 김봉숙로인이 이끌고 있는 ‘로인퇴봉반’에 가입했다.

그후로 박철원 부부는 김봉숙로인의 지팡이이자 두 눈이자 두 손이 되어 함께 퇴봉반을 열심히 이끌어갔다. 박철원은 마치 두집 살림을 하듯이 김봉숙로인의 모든 집안 살림을 챙겼고 심지어 70여세의 나이임에도 사화에 한번씩 20여키로메터를 자전거로 왕복하며 모아산에 가서 건강에 좋다는 샘물을 길어다 김봉숙로인에게 배달했다. 뿐만 아니라 년세가 많은 ‘로인퇴봉반’ 로인들이 한명 두명 세상을 떠난 후사처리도 전담하다 싶어 했다.

불우한 이웃과 학생에 따뜻한 손길

몇해전 화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맹인가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박철원은 출산하여 물자를 지원했고 수술비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는 기부금을 모아 치료를 돕기도 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연길시 삼도만진 산골에 사는 한족

16년의 혁명정신 계승 열정

박철원은 16년 련속 매년 청명절에 즈음하여 ‘로인퇴봉반’ 로인들과 함께 혁명렬사기념비를 찾아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전염병 류행 시기에도 혼자 술과 음식을 준비해 기념비를 방문해 제사를 올렸다. ‘7.1절’에는 ‘로인퇴봉반’을 이끌고 혁명유적지를 탐방하며 선렬들을 추모했다. 지난 10여년간 100여차례 혁명전통 교육을 진행했고 100여명 학생들에게 1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퇴봉정신’을 실천했다. ‘연길 로명사의 집’ 련사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8.1절’이던 자비로 련사유가족을 위문했다.

박철원은 그간 ‘선진퇴봉반’, ‘선진개인’, ‘민족단결모범가정’, ‘차세대관심사업선진일군’ 등 수많은 영예를 수여받았다.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개인’ 영예를 수여받은 후 박철원은 당과 인민을 위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리성복특약기자



매하구시민족문화관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일전, 매하구시민족문화관 손동수 관장과 매하구시음식업협회 리영화장 등 일행은 매하구시조선족실업소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도서를 선물했다. 선물은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해 준비한 것으로 학생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어 일행은 학교의 관련 책임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소집하고 조선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동수 관장은 조선족실업소학교에 민족문화관 활동기지의 설립을 제안했고 리영화 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민족문화관과 음식업협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매하구시민족문화관은 지난해에도 매하구시조선족실업소학교 유치원에 2,000원여치의 장난감을 기증하는 등 애심 행사를 조직해 조선족 어린이들의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손동수 관장은 “앞으로도 음식업협회와 협력해 이 같은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매하구시조선족실업소학교는 전통문화 교육의 거점으로 민족문화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 교육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문광호특약기자



연길, 미등록 양로기구에 대해 정돈

최근 연길시민정국은 미등록 양로기구에 대한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여 양로봉사 시장을 일층 규범화하고 안전생산 문제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조사, 대폭로, 대정돈’ 행동을 깊이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랑질의 양로봉사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동에서 검사조는 미등록 양로기구를 방문하여 입주 로인들의 기본 상황 및 경영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동시에 해당 기구에 <미등록 및 민정부문에 등록하지 않고 양로기구의 명의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정돈 및 청산 통지>와 <등록 촉구 통지>를 발부하여 기한내에 정돈하고 경영 모식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관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연길시민정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들에게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기구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엄격히 등록 심사 절차를 리행하며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지 양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경계를 모호히 하거나 군중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광범한 군중들은 식별 의식을 강화하고 봉



사 내용과 기구 자질을 자세히 료해해야 하는바 만약 규정을 어기고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불법기구’를 발견하면 즉시 민정부문에 반영하여 로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양로봉사 업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 검사조는 연길 시내 일부 양로기구(등록 완료)를 방문하여 소방설비, 감시통제실 구성 및 유지관리, 운영 상황, 안전출구와 대피통로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 가연성 가스 농도 경보 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검사가 끝난 후 검사조는 소방 위험 문제가 존재하는 양로기구에 대해 <시정 요구 통지서>를 발부하고 정한 기한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소방안전점을 보장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했다. / 오건기자

